전호근 <장자 그 신랄한 패러디의 세계>

제 12강 법 바깥에서 노닐다 II : <응제왕(應帝王)>편

◆ 1교시 ‘무위’의 수양과 통치

▲ 응제왕(應帝王)편의 개요

장자 내편의 마지막 응제왕(應帝王)편인데, 문자 그대로 표현을 하면 제왕이 세속의 군주니까 제왕의 물음에 응답한다는 뜻이 되는데, 전통적으로 그런 뜻으로 보는 주석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응당 제왕이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가 하는 뜻으로 많이 풀이가 됩니다. 본인이 풀이하기로는 제왕이 되어야할 자가 누구인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응제왕편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혼돈이야말로 제왕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혼돈이 뭐하는 사람이냐, 눈코입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중앙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눈코입귀 감각기관이 없고, 사방의 정치를 살필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입이 없으니까 정교를 발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스림이 없는 것이고 다스림이 없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위라는 얘기가 됩니다. 천하를 마땅히 무위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는 맥락이 응제왕편에 숨어 있는 거죠. 응제왕편의 이야기는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응제왕편의 이름 풀이.

응제왕편의 이름의 풀이에 대한 것을 보죠.
“응제왕이란 무엇인가? 응제왕이라는 편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첫째, **최선(最先)은**”,최선은 육등문의 경전성문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주석가입니다. 최선은 이렇게 봤다. “ ‘말없는 가르침을 행하여(行不言之敎)”노자에 나오는 말하지 않는 가르침인데 그것을 약간 변형한 것이다.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베풀어서 “ 천하로 하여금 스스로 소나 말이라고 여기게 하니(使天下自以爲牛馬)” 천하가 스스로 소나 말처럼 제왕에 의해서 부림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나 강제 같은 인위가 아니라 천하가 저절로 소나 말이 되어 부림을 당하니, “이러한 사람이 마땅히 제왕이 되어야 할 자(應爲帝王者也)”라고 풀이하여 응제왕을‘응당 제왕이 되어야 할 사람’의 뜻으로 보았습니다. 곽상(郭象)도 좀 비슷합니다. 곽상의 견해는 “무심하여 자연스러운 변화에 몸을 맡기는 자가 응당 제왕이 되어야 한다(夫無心而任乎自化者 應爲帝王).” 자연의 변화에 맡기지 스스로 나서서 정치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응당 제왕이 되어야 한다고 풀이했고 응위제왕으로 본 것이니까 최선의 견해와 같은 것입니다.

www.artnstudy.com

두 번째 견해가 있다. 송나라 때 남송의 주석가 **임희일(林希逸)**은 "제왕의 도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言帝王之道 合應如此也)." 응당 이와 같아야 할 제왕(帝王)이라는 의미로 본 것이다. 제왕의 도리를 말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주덕지(朱得之)의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학자 후쿠나가 미세지(福永光司)**는, '帝王에 어울리다·알맞다·적합하다'라고 보아 '장자적 초월자는 정신의 세계의 절대자인 동시에, 그 절대성 때문에 현실세계의 최고지배자인 帝王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았는데 응당 제왕이 되어야 한다는 뜻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이 견해는 송대의 저백수(褚伯秀)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에게서 유래한 것이고 청대의 선영(宣穎)과 일본의 적총충(赤塚忠) 등이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최선과 조금 비슷하지만 맥락이 다릅니다.

넷번째로 **이원탁(李元卓)**의 장자십논(莊子十論)에서는 "제왕은 세상에 응함에 오직 고요히 움직임이 없다(夫帝王之應世 唯寂然不動)"고 풀이합니다. 적여부동(寂然不動)이란 말은 원래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그것과 연결하면 됩니다. "사물에 대응하는 帝王" 의 의미로 보았는데 결국 실제 인간 세계의 군왕이라는 의미보다는 모든 사물을 총괄하는 근원자, 도의 의미로 본 것입니다. 명나라 초횡(焦竑), 명말 초의 왕부지(王夫之), 청나라 때의 임운명(林雲銘) 등이 이원탁의 견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현대학자이며 일본학자인 **관봉(關鋒)**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관봉은 노장을 전공한 중국학자인데 2002년까지 생존하였을 때, 거의 90세에 가까운 나이였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관봉은 "제왕의 물음에 응답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包含着應帝王之問的意思)"고 풀이했습니다. 맹자나 공자처럼 제왕이 장자에게 어떻게 천하를 다스려야 할 것인가 질문을 했고 거기에 장자가 대답했다, 또는 직접 질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왕들의 요구에 맞춰서 장자가 대답한 내용이 무위의 정치고 혼돈의 정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한 것이다. 일리는 있습니다.

계속 보죠.

"이처럼 편명에 대해서 이론이 분분하지만 본서에서는 세 번째의 견해를 따라 '帝가 되고 王이 되기에 적합한 제왕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장자의 '帝王'은 세속적 권력의 소유자인 군주가 아니라 제1장의 태씨(泰氏), 제2장의 성인(聖人), 제3장의 천근(天根), 제4장의 명왕(明王), 제6장의 지인(至人) 등과 같이 도를 체득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의 군왕이 장자를 찾아와서 자문했을 확률은 별로 없고 장자 스스로 지어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제 제왕으로 보는 것은 맥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 내성(內聖)과 외왕(外王)

www.artnstudy.com

왕숙민(王叔岷)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숙민은 대만에 있는 국립중앙연구원의 교수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도(天道)」편에 나오는 장자 외편의 "정이성(靜而聖), 동이왕(動而王)"이라는 고요히 머물러 있을 때는 성인이고 움직여서 정치를 베풀었을 때는 왕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대종사(大宗師)」편은 內聖의 道를 다한 부분이고(궁내성지도 窮內聖之道), 응제왕편은 外王의 이치를 다한 부분(진외왕지리 盡外王之理)이라고 설명하여 유가의 내성외왕론을 적용하여", 여기서 유가라고 했지만 내성외왕(內聖外王)이라는 말 자체가 장자 맨 마지막의 천하편에 나옵니다. 장자가 유가의 도를 내성외왕지도라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자가 표현한 유가의 규정이 후세의 유가학자들도 인정할 만큼 아주 공평합니다. 내면의 덕으로 이야기하자면 성인이고, 곧 군왕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니까 바깥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지위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후세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 요순탕하문무주공은 왕이었다. 주공은 천왕을 보좌해서 다스렸으니까 왕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내성(內聖)이었고, 외왕(外王)으로 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자 때부터는 내성이었는지는 몰라도 (스스로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맹자도 내성이었는지 몰라도 외왕은 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공자가 자기를 알아주는 자들을 찾았던 것이고 맹자도 돌아다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율곡이나 퇴계도 선조를 만나서 선조가 내성이 되기를 바라고 성학십도, 성학집요 이런 걸 지어서 바쳤던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내성외왕의 도를 말한 것이다. 상당히 깊이 있는 풀이이긴 하죠. 그래서 장자에 나오는 대종사편은 내성이고 응제왕편은 외왕이다. 대종사편에 보면 으뜸이 가는 스승이 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장자를 이해하고 있는데 독창적인 면도 있고 깊이도 있지만, 장자의 편집 구조가 반드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아직은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참고할 만합니다.

▲ 장자의 정치가 비판 받는 이유

"장자는 이 편에서 천하를 다스리지 않고 **천하에 맡겨두는 정치야말로 성인의 정치**이며, 인위적인 지식으로 사람을 구속하는 통치는 **도리어 인간을 파괴하는 비극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자의 이런 입장은 현실적으로 그릇된 정치를 비판하는 데는 유용하게 활용이 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정치 현장에서 적용하기 힘들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굳이 장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왕도정치를 말했던 맹자도 당시 군주들이 보기에는 현실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장자의 무위의 정치라는 것도 비슷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 두 번째 이야기 "모기로 하여금 산을 지게 하다" >

▲ 견오와 접여에 대해서

주제는 "모기로 하여금 산을 지게 하다" 인데 모기가 산을 지가 날아갈 수 있겠는가? 아주 작은 짐승인 모기가 신을 지게 하는 것처럼 무리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견오(肩吾)가 광접여(狂接輿)를 만났는데" 견오는 소요유편에 나오는 견오와 연숙이라고 할 때 사람의 신체인 어깨를 의인화한 주인공이고, 접여는 덕충배편에 나와서 공자를 비웃

www.artnstudy.com

는 초나라 사람입니다, 논어에도 나옵니다. 접여라는 말이 공자의 수례를 만났다는 의미이고 실제로는 육통이라고 합니다. 성이 육씨고 이름이 통인데 견오와 광접여가 만났다고 했으니까 둘 다 가공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무을 빌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말이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서 광접여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 유가의 수양법과 군주의 정치방법

견오가 광접여를 찾아가서 배우려고 물었던 것이고 광접여가 본래 견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던 중시에 대해서 묻습니다. 광접여가 말했다. "요 전날 중시(中始)는 그대에게 무엇을 말해 주던가?" 견오가 말했다. "저에게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군주 노릇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 마땅한 법식과 올바른 법도를 실천하면 백성들이 누가 감히 복종하고 교화되지 않겠는가.'**" 중시가 누구를 빗대서 말한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이런 식의 맥락은 원문을 보면 표현이 영 다릅니다. "군인자(君人者) 이기(以己)로 출경식이도(出經式義度)하면 人孰敢不聽而化諸(인숙감불청이화제)리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논어에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기신정(基身政)이면 불령이행(不令已行)" 하고, 군주의 몸(군주자신)이 올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정치가 시행되고 "기신부정(基身不政)이면 수령불행(隨命不行)" 한다, 자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올바른 법도를 지키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들이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는 맥락이다. 군주 노릇하는 자가 자기가 잘하면 백성들도 복종하고 교화할 것이라는 식인데 맹자에도 비슷한 말이 나온다. 칠십 여명의 제자가 공자를 따르는 것의 심복,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복종하게 하지 않는 심복을 얘기할 때 비슷한 말이 나온다.

▲ 인위적 수양법과 통치 행위 비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견오가 말하니까 광접여가 그것을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거짓 덕이니 그런 것으로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은 마치 바다를 맨발로 걸어서 건너고 강물을 맨 손으로 파서 길을 내며 모기의 등에 산을 짊어지게 하는 것과 같다.",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인의 다스림이 외면을 다스리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바르게 다스린 뒤에 시행되어서 확고하게 자기가 할 일을 잘 할 뿐이다. 또한 새는 높이 날아서 주살의 해를 피할 줄 알고, 생쥐는 신단 아래 깊이 구멍을 파서 연기를 피우거나 파헤쳐지는 재앙을 피할 줄 아는데 자네는 어찌 그래 이 두 벌레의 지혜도 알지 못하는가?" **천하를 다스리겠다고 자기 자신에게 마땅한 법식과 올바른 법도를 실천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새가 높이 날아 주살의 해를 피하고 생쥐가 구멍을 파서 연기를 피우고 파헤쳐지는 재앙을 피하는 것보다 못하다**, 자신을 법식에 옭아 메는 것은 맨발로 바다를 걷는 것처럼 무모한 일이다, 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통치 행위를 비판한 것이기도 하고 공맹식의 수양론을 비판한 것이기도 합니다. 공맹식의 수양론은 기본적으로 수신을 통해서 가제, 제가(집안을 가지런히 다스리고)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새와 생쥐의 방식보다 못한 위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양의 가치도 부정하고 아울러서 유가의 인위적인 정치도 같이 부정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비슷

www.artnstudy.com

한 맥락입니다. 천하를 다스리지 않으면 천하가 다스려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 천하를 다스리지 않으면>

▲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은 ‘무위‘다

“천근(天根)이 은산(殷山)의 남쪽에서 노닐 적에 요수(蓼水) 물가에 이르러 마침 無名人을 만나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모두다 우언이죠. 하늘의 뿌리란 뜻의 천근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은나라가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만 은자체가 크다는 의미로 은산은 태산이란 뜻입니다. 하늘의 뿌리가 커다란 산 남쪽에서 노니는 것이다. 요(蓼)는 아득하다,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명인도 아득하고 끝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을 만나 이렇게 묻는다. “청컨대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 대해 여쭙습니다.” 무명인이 대답했다. “물러가라. 그대는 비루한 사람이다. 어찌 물음이 이다지도 불쾌한가.” 나한테 왜 천하 다스리는 일을 묻느냐는 것이죠. “바야흐로 조물자(造物者)와 함께 벗이 되었다가” 이것은 원문이 “여조물자(與造物者)로 위인(爲人)이라“인데, 조물자는 피조물을 만든 자, 者는 비칭으로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이때 人은 벗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해 둘만합니다. “싫증이 나면 또 아득히 멀리 나는 새를 타고 육극(六極)의 밖으로 나가서 **무하유(无何有)의 고향에서 노닐고” 무하유지향은 소요유편에 나왔고 육극은 육합이라고 해서 나왔다.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전후좌우에 상하, 사방을 합친 것**이다. 광양지하, 소요유편에서는 광막지하라고 했는데 뜻은 같습니다. “끝없이 넓은 들판에 머물고자 하는데, 그대는 무엇 때문에 천하를 다스리는 일로 나의 마음을 흔들어대는가?” 자신은 천하 바깥에서 노니는 사람인데,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느냐는 것이죠. 천근이 또 다시 묻자 무명인이 대답했다. “그대가 마음을 담담한 곳에 노닐고, 기를 적막한 곳에 부합시켜서, 物의 自然을 따라 사사로운 욕심을 용납하지 아니하면 천하는 다스려질 것이다.”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심을 버리면 천하가 저절로 다스려질 것이다,** 결국 무위로 천하를 다스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여섯 번째 이야기 : 거울 같은 마음>

▲ 마음을 비우고 사물을 왜곡하지 않는 것

“명예(名譽)의 주인이 되지 말며” 명예의 주인이 되면 구속된다는 뜻입니다. “모략의 창고가 되지 말며” 꾀를 내면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일의 책임자가 되지 말며”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 지혜의 주인이 되지 말라.” 지혜를 부리게 되니까 결국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다함이 없는 道를 완전히 체득해서 흔적이 없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세계에 노닐도록 하라. 하늘에서 받은 것을 극진히 하되 이익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오직 마음을 비울 따름이다.” 마음의 평정상태를 이야기 하는 건데 그것을 거울과 같은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至人의 마음 씀씀이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사물을> 보내지도 아니하고 <사물을> 맞이하

www.artnstudy.com

지도 아니하며, 비추어 주기만 하고 모습을 간직하지는 않는다.” 그대로 비춰주기만 하면 될 텐데 그것이 꼭 뭔가를 보탠다. “그 때문에 만물의 위에 군림(君臨)하면서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사물을 다 비춰주는데 뭔가를 보태서 사물을 왜곡하는 일이 없다.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도 사실은 거기에 다른 것을 덧붙여서 왜곡하는 일이 없다면 쓸데없는 오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거울 같다고 하는 것을 어떤 사심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흔들려서 상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는 일이 빚어지니까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비워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어떤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고 중요한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는 장자 여러 편에 자주 나온다. 장자만이 아니라 불교와 관련된 여러 책에도 나오는데 올바른 말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 사기가 될 수도 있고, 기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사심이 없는 상태를 가져야 다른 사람을, 사물을 왜곡하지 않고 비출 수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 혼돈칠규(渾沌七竅)>

▲ 숙과 홀에 대해

응제왕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마지막의 일곱 번째 혼돈칠규입니다. 혼돈을 중앙을 다스리는 제왕으로 중앙의 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돈을 위하는 마음에 칠규, 일곱 개의 구멍을 뚫어주었더니 혼돈이 죽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남해의 帝는 숙(儵)이고 북해의 제는 홀(忽)이고 중앙의 제는 渾沌이다.” 숙은 갑자기, 홀은 ‘홀연히’란 뜻이니까 숙과 홀은 순간, 눈 깜짝할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을 의미하고 이들은 시간의 신들이다. 숙홀지간(儵忽之間)하면 그야 말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시간인데 숙과 홀로 의인화 한 것입니다.

▲ 혼돈을 죽인 감각기관의 의미

“홀이 때때로 혼돈의 땅에서 함께 만났는데, 혼돈이 그들을 매우 잘 대접하였더니, 숙과 홀이 혼돈의 은덕에 보답하려고 함께 상의하여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일곱 개의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데, 이 혼돈만은 없으니, 시험 삼아 구멍을 뚫어줍시다.’하고는 하루에 한 구멍씩 뚫었더니 칠일 만에 혼돈이 죽어버렸다.” 결국, 얼굴의 눈, 귀, 코, 입의 구멍을 합치며 일곱 개인데 혼돈은 일곱 개의 감각기관이 형성되면서 죽은 것입니다. 앞에 말한 대종사편의 좌망을 이야기할 때, 안회가 일체의 감각기관을 다 잊어버린 상태를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혼돈으로 복귀하는 상태라면, 이목구비의 감각이 다 회복되는 것은 혼돈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욕망이 열리면서 본래 타고난 천진스러움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눈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 하고 귀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싶어 하고 입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게 없었을 때는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감각기관이 생기면서부터 마음의 평정도 흔들리고 안정적 상태에 있던 천진이

www.artnstudy.com

사라져 버린다는 의미에서 혼돈스러움을 이야기한 것이죠.
장자가 이야기하고 싶어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인간의 감각이나 문명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혼돈설화를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혼돈의 칠규를 가지고 일곱 개의 구멍과 내편의 칠편을 연관지어서 혼돈의 일곱 개 구멍이 내편 칠편을 의미하는 편집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거가 많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외편을 장자의 텍스트로 봐야 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장자 칠편을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일부를 읽어 봤는데, 장자 전체는 7편이 아니고 33편입니다. 나머지 26편이 남아 있는데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외편과 자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장자가 이제 내편에서 다 하지 못한 남은 이야기를 간추려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내편은 장자가 직접 저술한 것이고 외편은 장자의 후학이나 후세 사람들이 덧붙인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자와 같은, 내편에 나오는 소요유편이나 제물론편에 나오는 모티브를 가져다가 새롭게 이야기를 구성한 대목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썼다 하더라도 하는 이야기가 같으므로 같은 텍스트로 간주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작자가 누구냐에 따라 크게 갈리니까 그런 차이점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성전의 고문헌으로써 오랫동안 장자의 33편(물론 진나라때 곽상이 전달한 것이라고 하지만)을 장자의 텍스트로 묶어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내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외편에 나오는 이야기 중심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www.artnstudy.com